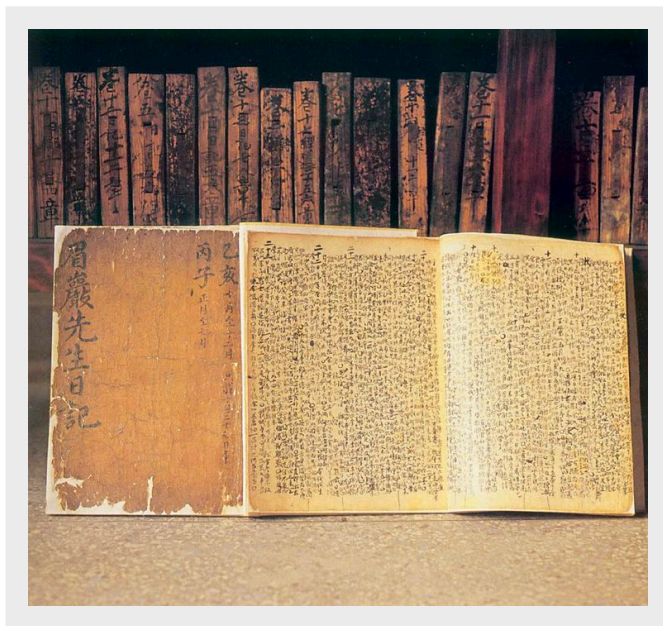


# 유희춘[柳希春]

## 미암일기에 조선의 실상을 기록하다

1513년(중종 8) ~ 1577년(선조 10)



### 1 개요

유희춘(柳希春)의 자는 인중(仁仲), 호는 미암(眉巖)·미암거사(眉巖居士)·인재(寅齋)·연계(漣溪)·연계권옹(漣溪倦翁)이다. 본관은 선산(善山)이고, 1513년(중종 8) 전라도 해남(海南)에서 출생하였다. 할아버지는 유공준(柳公濬), 아버지는 유계린(柳桂鄰)이고, 외할아버지는 『표해록(漂海錄)』을 지은 최부(崔溥)이다. 그리고 부인은 송준(宋駿)의 딸 송덕봉(宋德峯)으로, 『덕봉집(德峯集)』이라는 시문집을 남긴 문학가이다.

유희춘은 1538년(중종 33) 별시문과에서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547년(명종 2)에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로 인해 제주(濟州)·종성(鐘城)·은진(恩津)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19년 간 저술과 교육에 몰두하였다. 1567년(선조 즉위)에 풀려난 후에는 여러 관직을 거쳐 사헌부 대사성, 홍문관 부제학, 전라도 관찰사,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은퇴 후 저술에

힘쓰다가 1577년(선조 10)에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희춘과 그의 부인 송덕봉의 묘는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에 있다.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 2 을사사화의 소용돌이, 유배에 처해지다

유희춘은 김안국(金安國), 김굉필(金宏弼), 최산두(崔山斗) 등 호남 사림의 학맥을 통해 학문을 배웠고, 1537년(중종 3) 25세에 생원시, 1538년(중종 4) 26세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성균관 학유(學諭), 세자시강원 설서(設書), 홍문관 수찬, 무장현감(茂長縣監), 사헌부 정언 등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 무렵은 '대윤(大尹)' 윤임(尹任)과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 간 갈등이 증폭되던 때였다. 1544년에 인종이 즉위하면서 윤임의 세력이 막강해졌지만, 인종은 재위 9개월 만에 홍서하였다. 1545년 명종 즉위 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수렴청정이 행해지고 윤원형(尹元衡)이 권력을 잡았고, 기존 세력에 대한 척결이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사헌부·사간원에서 윤임, 유관(柳寬), 유인숙(柳仁淑) 등에 대한 처벌 논의가 행해졌을 때 유희춘, 백인걸(白仁傑), 노수신(盧守愼) 등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결국 그들은 파직되었다. [관련사료](#)

1546년(명종 1)에는 대윤 일파가 역모죄로 몰린 을사사화(乙巳士禍)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1547년(명종2)에는 문정왕후와 권신들이 권력을 휘둘러 나라가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의 벽서가 양재역에 내걸렸다. 이 '양재역 벽서사건'은 을사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유희춘을 비롯하여 많은 관료들이 유배되었다. 유희춘은 제주도로 안치되었는데, [관련사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가 그의 고향인 해남과 가깝다는 이유로 함경도 종성으로 이배되었다. [관련사료](#)

## 3 기나긴 유배생활, 저술에 몰두하다

유희춘은 종성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독서와 저술에 힘썼다. 그는 "평생 정주(程朱)의 문호에 들길 원했던" [관련사료](#) 만큼, 그의 저술 작업은 주로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구결(口訣)·언해(諺解)를 통한 해석본을 만들고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의 교정본을 만드는 데 집중되었다.

유희춘이 남긴 저서는 『속몽구(續蒙求)』, 『신증유합(新增類合)』, 『역대요록(歷代要錄)』, 『치현수지(治縣須知)』, 『속휘변(續諱辨)』, 『천해록(川海錄)』, 『헌근록(獻芹錄)』, 『주자어류전해(朱子語類箋解)』, 『시서석의(詩書釋義)』, 『완심도(玩心圖)』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속몽구』는 당나라의 이한(李瀚)이 지은 『몽구(蒙求)』의 속편 격으로, 총 4권에 592명의 인물에 대한 논설을 담고 있다. "17년간 공을 들여" 지으면서 [관련사료](#) 길재(吉再)와 같은 우리나라 인물도 포함하였다. 『신증유합』은 자학서(自學書)인 『유합(類合)』의 수정 증보판으로, 언

문으로 해당 한자의 음훈을 부기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리고 『치현수지』는 무장현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수령에게 요구되는 덕성과 능력을 정리하였다. 율신(律身), 어사(御使), 목민청송(牧民聽訟), 구언용민(求言用民), 치간근선(治姦勤善), 알성흥학(謁聖興學), 대사접빈(待士接賓), 독친념구(篤親念舊) 등의 덕목이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문집으로는 『미암집(眉巖集)』이 있다. 처음으로 간행된 때는 1612년(광해군 4)이지만, 이때의 판본은 전하지 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1869년(고종 6)에 중간한 것이다. 우선 문집의 권수(卷首)에는 선조의 비망기(備忘記)와 치제문(致祭文), 현종의 사제문(賜祭文), 기정진(奇正鎭)과 윤치희(尹致義)가 쓴 서문이 있다. 또한 총 21권의 본문은 시(詩), 문(文), 일기, 경연일기, 부록, 속부록(續附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집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는 유배기와 정계 복귀 이후에 지어진 것이다. 유배기의 것은 학문 연마를 통한 자기 수양과 일반 백성에 대한 애민(愛民)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고, 해배 이후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인 송덕봉에 대한 애정을 노래한 것이 많다. 그리고 '일기' 항목에는 『미암일기(眉巖日記)』가 수록되어 있다. 문집 일기에는 그가 친필로 기록한 『미암일기』에 없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 4 정계 복귀 후, 일기를 쓰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윤원형이 축출되면서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서사건에 대한 신원이 행해졌다. 이에 유희춘은 은진(恩津)으로 옮겼다가 1565년(선조 즉위) 55세의 나이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35세에 시작한 유배생활이 거의 20년 만에 끝났던 셈이다.

그는 해배 직후 경연관 겸 성균관 직강이 되었다. 이후 부제학, 예조참판, 이조참판, 대사성, 대사헌 등의 주요 관직을 역임했고, 외직으로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선조 집권 초기에 유희춘 자신이 을사사화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의 신원을 주도하기도 했다. [관련사료](#) 또한 유희춘은 경연에도 줄곧 참석하였고, 선조는 그의 강독과 해석을 상당히 신뢰하였다. [관련사료](#) 선조는 그에게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을 편찬하도록 하고, [관련사료](#) 사서오경에 대한 언해 등을 명하였다. [관련사료](#) 1576년(선조 9) 유희춘은 사직하고 귀향한 후 저술에 힘쓰다가 이듬해 병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그는 해배 이후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삶을 『미암일기』에 남겼다. 현전하는 『미암일기』는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 1일에 시작되어 1577년(선조 10) 5월 13일까지 약 11년 간 기록되었다. 중간에 몇 군데 빠진 곳이 있지만, 유희춘은 거의 매일 직접 친필로 일기를 기록하였다. 유희춘은 1567년 10월 이전에도 일기를 썼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재 11책이 전한다. 이 중 10책이 일기이고, 나머지 1책은 유희춘과 송덕봉 부분의 시문을 모은 부록이다.

『미암일기』는 유희춘 개인의 삶 뿐 아니라 당대의 정치, 사회, 경제, 행정, 사상, 예속, 민속, 의학, 풍수지리, 기상, 의식주 생활, 가정 교육 등의 시대상이 담겨 있다. 일단 일기에는 정계의 동향과 사림의 동태, 관찰사·수령의 업무, 관료의 인사 이동과 근무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다. 또

한 관련 기록은 개인의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확하였다. 간혹 누락되거나 잘못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정하였다. 따라서 훗날 임진왜란으로 『승정원일기』, 사초(史草) 등이 소실되어 『선조실록』의 기초 자료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미암일기』가 사료의 공백을 메울 정도였다.

## 5 미암일기 속 일상의 이야기들이 갖는 가치

역사가들이 조선시대 생활사·일상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데에는 『미암일기』와 같은 일기류가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부인 송덕봉과의 동지적 관계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일상 기록은 여성사·가족사 등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유희춘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우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그의 일기는 국가 기관에서 편찬한 실록(實錄) 등의 역사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내용까지 담고 있다. 따라서 일기의 일부 기록은 기존에 당연시되었던 사실(史實)을 비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미암일기』에는 국가의 녹봉을 받는 관료가 어떻게 가족 경제를 꾸렸는지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 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는 해배 이후 여러 주요 관직을 역임하면서 각지 수령들로부터 각종 식료품에서 사치품에 이르는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일가족의 집을 건설할 때 소요되는 물력 역시 지방관에게서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조선 관료가 녹봉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선물 교류 형태를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선물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가족 간 정성으로 마련한 것도 있었지만, 뇌물성 물품도 적지 않았다.

이외에 부인 송덕봉 및 첩과의 부부생활, 친족 간 교류, 자식과 손자들을 교육하고 혼인시키려고 노력하는 부성애, 꿈을 꾸고 나서 나름의 해석을 기록한 것, 자신의 건강상태와 질병 치료, 집에서 부리는 노비를 체벌한 내용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역시 관찬 역사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대목이다.